지역 메아리

정읍시 보건소, 내달 2일부터 한방 갱년기 관리 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내달 2일부터 한방 갱년기 관리 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1월 20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갱년기 고위험군 중장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한의사와 참여자 간 심층 상담이 진행되고 맞춤형 한방약제와 침요법도 병행된다.

또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인바디 등 기초검진과 올바른 걷기교육, 약선요리, 명상,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갱년기 증상 완화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539-610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정한민 교수 초청 4차산업혁명 성공전략 강의

4차 산업혁명시대 고창의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기업인협의회(회장 김종학)와 고창군은 지난 22일 다함께 잘 사는 상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4회 군민과 함께하는 고창경제 포럼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은 지역 내 우수 업체와 제품을 소개 후 과학기술연립대학원대학교(UST) 정한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방탄소년단(BTS)을 통해 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방탄소년단은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청춘을 공유하겠다'는 모토로 팬들에게 삶의 모든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방'과 '융합'을 통한 '초현실사회의 구현'에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 후에는 고창군과 고창경제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생발전 위해 두 손 맞잡았다

정읍시-서울특별시, 정책협력 MOU 체결

정읍시는 지난 24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동반자로서 공존과 상생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양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 사항은 ▲혁신적인 우수 정책 탐방 및 벤치마킹 ▲역사·문화 체험 등 청소년 교류활동 증진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네트워킹 ▲서울시 공무원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방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모두 7개 분야의 협약과제에 합의하고 세부 실행 계획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읍시와 서울시는 양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함께 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자치단체는 7개의 협약사항을 토대로 상생 발전할 뿐만 아니라 교류 항목을 점차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향상,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와 상생 협력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자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통과 현대적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와 전국 최고의 단풍고장, 그리고 KTX·SRT 개통과 함께 교통의 요지,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전북 서남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정읍시와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농산물 해외서 '인기몰이' … 가격 폭락 속 해외시장 개척 큰 결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를 위해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장섭)과 함께 부안양파 72톤(3600망/20kg기준)을 지난 23일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전국적인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해외 수출 방안을 모색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베트남 수출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됐다.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은 매년 수박 등 신선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해 왔으며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에 따라 올해 베트남 시장을 개척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부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부안군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를 위해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부안양파 72톤을 지난 23일 베트남에 수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과잉생산과 수입개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농산물의 소비·판매 위기를 수출시장 개척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부안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많은 세계시장에 알리고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1020크리에이터 발대식' 가져

정읍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윗 시티즌' 관광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020크리에이터' 발대식과 1차 워크숍을 지난 24일 정읍시청 다목적공간에서 개최했다.

'1020크리에이터' 사업은 1020세대들이 제작한 정읍 관련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생생하고 역동감 넘치는 정읍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와 동시에 각종 SNS와 유튜브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추어 청소년에게 올바른 매체 사용방법과 콘텐츠 제작 기술을 교육하고자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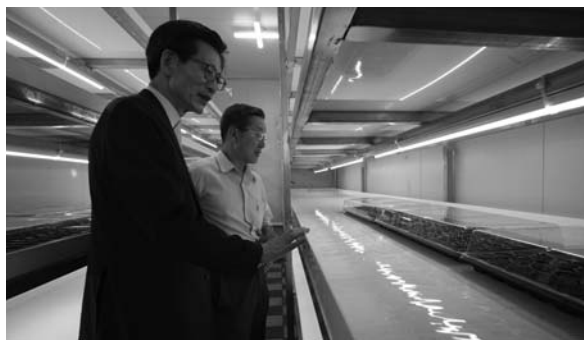
이번 발대식은 35명의 '1020크리에이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표 학생 2명을 필두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선서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콘텐츠 제작과 편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활동 방향과 미션 안내, 참가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4월 모집되어 간단한 미션과 이벤트를 통해 사전활동을 진행해오던 '1020크리에이터'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매월 정읍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연말에는 우수 크리에이터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매 미션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소정의 상품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020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정읍의 매력을 전국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성내면 소재 ㈜아로니아하우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물고기도 키우고 채소도 재배하고

고창군 아로니아하우스, 아쿠아포닉스 농법 시선집중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고창의 한 농가에서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 성내면 소재 ㈜아로니아하우스(대표 이영성)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재배법인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해 다음 달 부터 채소를 길러 생산할 예정이다.

아쿠아포닉스는(Aquaponics)는 물고기양식(Aquaculture)와 수경재배(Hydroponics)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다.

㈜아로니아하우스는 물고기 양식용 수조와 물을 순환시키는 배수펌프를 갖추고, 양식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하우스 안 수로로 흘려보내 각종 채소를 재배하게 된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해 재배한 채소는 물고기 유기물이 비료 역할을 대신해 질소 함유량이 적어 좀 더 자연에 가까우며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쿠아포닉스가 미래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비료, 무농약의 유기농 농업이자 자연 증발하는 물만 보충하면 돼 물 낭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농토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날씨와 계절과 관계없이 양질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도 높은 경쟁력이다.

현장을 둘러본 유기상 고창군수는 "국내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곳 시설은 타지역 에서까지 견학을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창 농특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곰소소금팀, 엠디엠 한국여자바둑 정규리그 우승

부안 연고 여자바둑팀 '부안 곰소소금팀'이 2019 엠디엠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다.

부안 곰소소금팀은 지난 5월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2019 엠디엠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10승 4패의 성적으로 총 8개팀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엠디엠 한국여자바둑리그는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며 지난 4월 11일 서울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부안 곰소소금, 서울 부광약품, 서귀포 칠십리, 여수 거북선, 인제 하늘내린, 서울 사이버오로, 포항 포스코케미칼, 서울 EDGC 등 8개팀을 선발한 바 있다. 김효정(3단) 감독이 이끄는 부안 곰소소금팀은 오유진 6단, 허서현 초단, 이유진 2단, 후지사와리나 4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8월 24일 시작한 포스트시즌 경기는 오는 9월 11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한다.

올해 대회 상금은 우승 5000만원, 준우승 3000만원, 3위 2000만원, 4위 10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이다.

/부안=김석진기자